기초 닦고 뼈대 세웠으니…3대 군종교구장은?

"객관적인사·공정한배려 재정지원 가능한 스님"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자광스님의 임기가 오는 7월말로 만료되는 가운데 차기 군종교구장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종교구장은 2005년 9월 신설된 군종특별교구의 대표로서, 4000여 개의 군인법사 140여 명의 군종승을 관리하며 교구 내 종무를 총괄한다.

현 교구장인 자광스님의 임기 만료일은 오는 7월24일. 군종교구에 따르면 상임 군종교구장 후보는 3대 군종교구 상임위원회가 추천해 종무원장 자승스님이 임명하는 형식를 밟게 되는데, 지난 달 열린 스님연 조계종 조계종단과 3대 자광스님에 이어 원로교육의 핵심이라 불리는 군포교의 미래를 설계할 제3대 군종교구장은 올해 중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군종교구장 후보 자격은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승납 20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인 법계 종위 이상의 스님이다.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군종특별교구장법 제10조). 후보는 현직 교구장을 의장으로 한 상임위원회가 추천한다. 상임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종무원 종무부장과 기획실장, 교육부장, 포교원 포교부장 스님을 비롯해 군종교구 수석보교구장, 국방부 및 육해공군 군종감실 선임 군승 각 1인과 군승원의에서 선출된 군승 6인 그리고 종무원장 스님이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스님으로 구성된다(제 2항). 현재 새 교구장 후보로는 군법사 출신 스님과 종단의 포교원장에 기여한 3~4명의 스님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조계 교구장 일면스님이 군종교구의 기초를 닦았다면, 3대 교구장 자광스님은 뼈대를 세우며 군내 불교 위상 제고에 이바지했다. 무엇보다 한국불교의 숙원 가운데 하나였던 육군훈련소 호국

> "
> 군 지도부와의
> 끈끈한 유대도 중요
>
> 현역 법사들 '공감'
> 상임위서 곧 추천
> "

사찰 불사의 원만회향이 최대 업적이다. 지난해 5월 낙성한 호국연무사 신축법당은 350여명의 장병을 수용할 수 있는 한국불교 최대 규모의 건물이다. 자광스님은 사내대중의 후원을 독려하는 동시에 불사원융을 화합의 장기로 성불에 앞장서 왔다. 올해 14억 원에 이르는 기액의 공사비를 만나보면서 곤궁보살피기 불사의 귀감이 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군포교와 내부대중 키우기 위해 1센터와 2개에서 힘을 쏟았다. 군포교 지원단체들의 결성과 민간단체가 다 간담회의 정기적인 개최가 단적인 예다. 군승 상월구원 등 교구의 각종 법규와 세칙을 새로 만들어 조직의 운영체 원칙에도 공헌했다.

군종교구장은 종단의 군포교 방향을 전두지휘하는 인물이란 상징성도 크다. 곧 군불교의 핵심과 현실을 명확히 이해해고 군승들을 뒤이을 수 있는 권위와 지도력이 중요한 자질로 손꼽힌다.

3군사령부 호국선방사 주지 해선 박동진 법사는 "군포교의 중심은 현역 군승이어야 군승으로서의 능력과 품성이 포교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계관학인 인사기준을 확립해야 정체와 공공한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이 계신고 거쳐 통력 등 3대 종교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교지도부와 끈끈한 유대도 강화해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60만 장병을 대상으로 한 보시와 위문은 이른바 '월래정'으로 불린다. 군종교구의 중추를 맡고 있는 한 영관급 법사는 "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중의 스님이 재정지원 가능한 스님이다"라고 말했다.

현역 군종교구는 종단의 종합종무원 프로그램인 '가람지구'를 통한 양한 지산, 포교과 과를 지역별 법묘프로젝트 개발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장병들의 유형과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포교에 나서는 등 서비스 개념상의 '오지'를 넘어 '내륜' 에 중심을 기해야 한다는 야야기다. 결국 '질적 포교' 에 대한 관심은 3대 교구장 스님에게도 요구되는 덕목이다.

정성과 군종교구 종래기획실 장은 "그간 쌓아왔던 성과는 자기 집행력에 유익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양섭 기자 fant@buligo.com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반자니아 학교 건립은 자비 나눔의 무대를 국내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진은 동방문화재단 이사장 정우스님이 5월28일 '아프리카 학교 건립 성금' 에서 이른다은 통령 이사장 자승스님에게 기금 3000만원을 전달하는 모습. 맞서 27일 호산재 기자 sd50nd@buligo.com

■ 아름다운동행 아프리카 학교건립 '의미'

자비나눔 무대 아프리카로 확대

농업기술 전수
한국문화 전파
포교기지 마련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학교 건립 사업이 지난 5월28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조계종은 선포식을 통해 아프리카 학교 건립 의지를 불교계 안팎에 천명했다. 아프리카 반자니아에 세워지는 학교는 기아와 전쟁, 질병, 문맹률 등으로 고통 받는 관은 대륙에 자비의 온기를 전해는 장구기 될 전망이다.

아프리카 학교 건립은 조계종이 강조해 온 자비 나눔의 무대를 아프리카로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내 사회의 약자, 소외된 이웃을 보듬고 함께 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해 온 종단은 아프리카 학교 건립을 계기로 지구촌의 고통을 나누기 위한 발원을을 내딛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불교의 진리에 뿌리했던 아프리카에 불교의 씨앗을 심고 포교 전진기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의미가 크다. 먼교는 명지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다를 배스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을 전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불발만 국제구호활동을 펼쳐 온 이웃돕고의 아프리카 진출과 비교했을 때, 그동안 불교계의 인출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지난 2007년 불교계 회토론 아프리카 케냐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구촌공생회를 비롯해 열렸 스님들이 개인적인 활동이 전부였다. 종단 차원에서 의지를 교리적으로 펴를 전파고 인류애적인 복지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불교의 궁극적 목표를 이뤄가기 위해 종단교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획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종 군종교구 종단의 군포교 방향을 전두지휘하는 인물이란 상징성도 크다. 곧 군불교의 핵심과 현실을 명확히 이해해고 군승들을 뒤이을 수 있는 권위와 지도력이 중요한 자질로 손꼽힌다.

3군사령부 호국선방사 주지 해선 박동진 법사는 "군포교의 중심은 현역 군승이어야 군승으로서의 능력과 품성이 포교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계관학인 인사기준을 확립해야 정체와 공공한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이 계신고 거쳐 통력 등 3대 종교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교지도부와 끈끈한 유대도 강화해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60만 장병을 대상으로 한 보시와 위문은 이른바 '월래정'으로 불린다. 군종교구의 중추를 맡고 있는 한 영관급 법사는 "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중의 스님이 재정지원 가능한 스님이다"라고 말했다.

현역 군종교구는 종단의 종합종무원 프로그램인 '가람지구'를 통한 양한 지산, 포교과 과를 지역별 법묘프로젝트 개발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장병들의 유형과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포교에 나서는 등 서비스 개념상의 '오지'를 넘어 '내륜' 에 중심을 기해야 한다는 야야기다. 결국 '질적 포교' 에 대한 관은은 3대 교구장 스님에게도 요구되는 덕목이다.

정성과 군종교구 종래기획실장은 "그간 쌓아왔던 성과는 자기 집행력에 유익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양섭 기자 fant@buligo.com

난치병 어린이 지원 거룩한 만남 ARS 3000배 철야정진 성금 모아 '전달'

불교방송, 복지재단에

불교방송이 지난 5월27일 조계종 전법원과 6명 재단 프로그램실에서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지원을 위해 모금한 4300만원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전달했다. 기금은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프로그램을 통해 난치병 어린이 가정을 소개하며 ARS모금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 불교방송은 지난 4월 열린 난치병 어린이 지원 3000배 철야정진을 감동 주관하며 모금을 진행해 왔다.

이에와 불교방송은 사장은 성고 전달식에서 "불교방송을 는는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전달하게 됐다"며 "불교 방송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앞으로도 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듭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위원스님은 "불교방송에서 후원을 해 온 덕분에 3000배 철야정진이 성황리에 진행됐고 난치병 어린이 지원을 위한 모금도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재단은 이날 전달받은 불교방송 모금액과 서울 조계사 및 전국 사찰에서 동참한 현장모금액, 해 한 달간 지속된 온라인 모금액을 합해 모는 개원 이래 최대로 전달 받게이다고 했다. 지금 지원 대상이 는 병원 법당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을에 통해 추천받아 4000 명을 선정해 지급할 및 수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태규 기자 ctw119@buligo.com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봉헌 계획

■ 제일건명 325-20-221949
■ 국민은행 477401-01-179603
■ 농협 정 301-0063-3042-71
예금주 : 호국연무사
■ 문의
031)740-8646, 797-7266
748-1395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개발 '불가'

불교 NGO활동가들
'태국 노하우' 듣다

불교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NGO 활동을 펼치고 있는 태국의 단체 활동가를 초청해 노하우를 들는 강연회가 열렸다. 사단법인 포터스불드와 디프리더스 등은 지난 5월22일 한국불교여사문명기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태국 SEM 활동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환경 존중원변리 SEM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와 '태국 SEM으로부터 배우는 임파워먼트 성공사례' 를 주제로 활동사례와 성과를 소개했다. 이날 환본 사무국은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개발도 불가능하다"며 "변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과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인식과 자기성찰력이 대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원 사무국장은 대한 제하시설부터 환경정의와 사회 개혁운동에 참여해왔고 1997년부터 SEM에 결합해 동남아지역 NGO와 활동가 권한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해왔다. 또한 불보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불원하는 단체와도 협력해 왔등라고 있다.

SEM은 동식물의 사상과 방법론을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동남아 불교 국가들의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원변화를 모색하는 NGO 단체로서, 태국 사원운동의 태두이자 국제적인 환어불교지도자 '슬럭시바라사' 박사가 설립했다.

홍다영 기자 hong0@buligo.com

불기2557년도 하안거 각 교구본사 등의 포살 일정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불기2557(2013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각 교구본사의 포살 시행 일정을 공고하오니, 결계신고하신 스님들은 결계신고 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본사 등의 포살 일정

교구	사행명	전화번호	포살일정(양력+월/일)	시간	포살 장소	포살명소
1	대흥사	061)532-8001	스님포살 7월 7일	10:00	대웅보전	도제의 법문
2	송광사	061)755-1881	6/8	10:00	법보	공주의 법문
3	백양사	061)392-7001	7/4	10:00	대웅전	대중의 법문
4	불갑사	061)356-8855	6/2	10:00	대웅	대중의 법문
5	선암사	061)754-8001	6/5	10:00	대웅	대중의 법문
6	천관사	061)861-8001	6/5	10:00	대웅	대중의 법문
7	미황사	061)533-7001	6/5 7/20 8/20	10:00	대웅	대중의 법문
8	도피안사	061)362-8001	6/5	10:00	대웅	대중의 법문
9	은적사	061)362-8001	6/5	10:00	대웅	대중의 법문
10	불회사	061)362-4443	6/25 7월	10:00	대웅	대중의 법문
11	대원사	061)532-3391	7/2	10:00	법당	대중의 법문
12	쌍계사	055)883-1901	6/26	10:00	대웅	대중의 법문
13	범어사	051)508-3001	6월 27일	08:00	대웅전	법사의 법문
14	통도사	055)382-7001	6/29 7/01	10:00	대웅	법사의 법문
15	해인사	055)934-9101	7/7 8/6	10:00	대적	대중의 법문
16	동화사	053)980-7001	6/26	10:00	대웅	법사의 법문
17	고운사	054)863-0204	6/7	10:00	보인	대중의 법문
18	봉암사	054)566-8441	6/5	10:00	대웅	대중의 법문
19	법주사	043)543-3001	6/5	10:00	대웅	대중의 법문
20	마곡사	041)841-5001	6/26	10:00	대웅	대중의 법문
21	송광사	061)755-0107	보살계 포살	6/24 10:00	대웅	송광사 대중의 법문
			비구계 포살	6/26 10:00	대웅	
				6/28 10:00	대웅	
				7/01 10:00	대웅	
				7/03 10:00	대웅	
			불교대표 포살	7/05 10:00	대웅	종정
22	대흥사	061)532-8001	6/25	10:00	대웅	대중의 법문
23	은해사	054)335-0001	6/25	10:00	보광	대중의 법문
24	봉선사	031)592-0001	7/7	10:00	대웅	대중의 법문
25	봉정암	033)537-5914	6/8	10:00	대웅	봉정암 법륜
합계	25본사	108개소 90곳	6/7	10:00	전체	각종 법문
	조계사	02)768-3000	7/28	10:00	법당	법륜 법문
	불교대학	02)768-3000	7/28	10:00	법당	법륜 법문
	불교방송	02)720-0001	6/8	10:00	대웅	법륜 법문
	조계사	02)768-7124	3/8	10:00	법당, 대전	법륜 법문

※ 포살 일정 및 시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교구본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대법사(주) 중앙문화사(www.buddhism.or.kr) 종무행정 - 종무자료실 - 교구 - 대중결계와 포살 관련 서류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포살법회에는 반드시 종단가사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한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 해야 합니다.
- 타교구 포살 참여 두 3일 이내,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결계서식)'를 결계신고한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교구 포살참여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 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 해야 합니다.
- 타교구 포살 참여 두 5일 이내,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결계서식)'를 결계신고한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기2557(2013)년 6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